

불국사의 9세기 神琳系 불교조각

The 9th Century Buddhist Sculptures of 'Disciples of Shinrim (神琳系)' in Bulguksa Temple

저자 (Authors)	임영애 Lim, Young-ae
출처 (Source)	미술사학 , (37), 2019.2, 35-58 (24 pages) Art History , (37), 2019.2, 35-58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미술사교육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t History Educ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17699
APA Style	임영애 (2019). 불국사의 9세기 神琳系 불교조각. 미술사학, (37), 35-5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5: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불국사의 9세기 神琳系 불교조각

임 영 애 *

- I. 머리말
- II.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금동아미타불좌상: ‘둘이 아닌 華藏과 極樂’
- III. 騎獅文殊, 騎象普賢의 석조비로자나삼존상
- IV. 맺음말: 신림계 불교조각의 확산

I. 머리말

불국사에는 흥미로운 두 종류의 불상이 있다. 하나는 ‘금동비로자나와 아미타불상이 한 세트’를 이룬 예이며, 다른 하나는 ‘문수·보현보살이 사자·코끼리 대좌에 앉은 비로자나삼존상’이다. 이 두 종류는 한국조각사에서 그 유례가 아주 드문 특별한 예이다. 이런 특별한 조합을 한 예들이 이곳 불국사에 조성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글은 바로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첫째, ‘금동비로자나와 아미타불상’이 조합을 이룬 예는 불국사를 대표하는 불상이다. ‘비로전의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극락전의 금동아미타불좌상’이 그것인데, 이 2구는 불국사뿐만 아니라 신라를 대표하는 금동불상이기도 하다. 2구는 손 모양만 서로 다를 뿐 모습은 쌍둥이처럼 닮아 한 사람의 숨쉴음을 알 수 있다. 작품성이 뛰어난 데다가 크기도 비로자나불좌상이 177cm, 아미타불좌상이 165cm로 사람 키만 한 큰 규모여서 일찌감치 각각 국보 제 26호, 제 27호로 지정되었다. 통일기 신라시기 이 정도 크기의 금동불을, 그것도 2구를 동시에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국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다른 기념비적인 작품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한 ‘석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의 대좌’이다. 아쉽게도 대좌 위에 앉았을 비로자나불상과 문수·보현보살상은 사라지고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대좌도 많이 파손되었지만, ‘문수보살상이 앉았던 사자 대좌’와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부교수

** 이 글은 불국사성보박물관 개관 도록인 『불국사』(2018)에 실린 필자의 「통일기 신라 불국사의 불교조각」 원고(pp. 253-263)를 대폭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혀둔다.

‘보현보살상이 앉았던 코끼리 대좌’는 그 유례가 드문 매우 소중한 예이다. 이 외에도 최근까지 불국사 대웅전에 보관되어 있던 광배가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불국사에 남아있는 그 어떤 불상과도 짝이 맞지 않지만, 광배 위에 새겨진 ‘다양한 손 모양을 한 化佛’과 화려한 넝쿨무늬가 특징이다.¹

현재 불국사에 남아있는 불교조각의 수량은 통일기 신라 불국사의 사세를 생각하면 너무나 적다. 기록조차 매우 영성하여 통일기 신라시기 얼마나 많은 불상이 조성되어 있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시대 기록이긴 하나 1580년 불국사를 방문했던 良齋 李德弘(1541-1596)이 남긴 『東京遊錄』에 ‘절 문을 들어서니 금당, 석탑, 옛 불상, 새로 그린 그림이 천태만상으로 기이했는데, 모두가 신라의 것이었다’고 적고 있어 임진왜란으로 피해를 입기 전 화려했던 옛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² 이 글은 위에서 언급한 통일기 신라 불국사의 불교조각 가운데 불국사를 대표하는 두 종의 불상, 즉 ‘금동비로자나·아미타불상’과 ‘기사문수·기상보현을 좌우 협시로 한 석조비로자나 삼존상’을 중심으로 살핀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불교조각을 별도로 이해하고 연구했지만, 이 글에서는 불국사에 주석했던 화엄학승 ‘神琳(??)’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 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³ 이 두 종류의 조각은 불국사라는 통일기 신라의 특별한 사찰에서 9세기라는 특정 시기에 조성한 것이며, 동일한 도상을 神琳과 관련된 권역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불국사에는 이 외에도 4구의 금동불입상이 더 있다. 불국사 경내에서 발견된 2구의 소형 금동불입상과 일제강점기의 유리건관 사진으로 남아있는 다보탑 북측에서 발견된 2구의 금동불입상이 그것이다. 불국사 경내 발견 소형 금동불입상 2구 가운데 1구는 높이 12.5cm의 상으로 1969년 무설전터에서 발굴되었으며, 1972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둥글넓적한 육계, 백률사 금동불입상과 같은 형식의 가사, 얇은 깊이의 조각선 등은 대략 9세기 무렵의 금동불임을 알려준다. 다른 1구는 2013년 불국사 삼층석탑 해체수리 과정에서 상층기단 적심내부에서 발견되었다. 탑 안에 불상을 봉안하는 경우 탑신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상은 특별한 장치없이 기단 적심석 사이에 두었다. 크기도 작아 높이 4.6cm의 초소형 금동불입상으로 탑을 위한 공양용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탑 기단부에 봉안된 소형 금동불 및 불상들에 대한 연구는 Lim Young-ae, “Buddhist Ritual and the Bronze Buddha Mold Excavated from the Western Five-Story Stone Pagoda of Hwaōmsa Temple” (근간)에서 보다 면밀히 밝힐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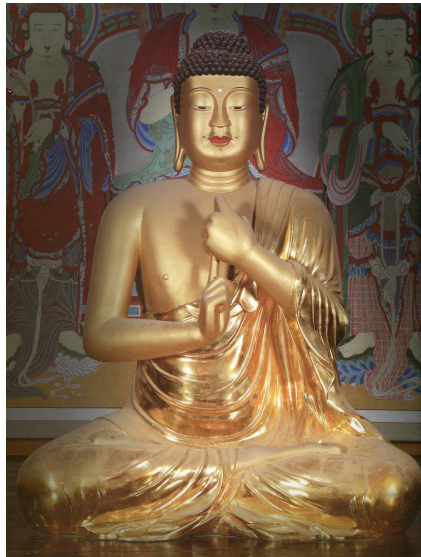
2 李德弘, 『良齋集』 卷7 (民族文化推進會 編輯, 『韓國文集叢刊』 51, 1990), p. 212.

3 물론 9세기에 제작된 불국사 조각은 신림이 활동했던 8세기 중엽-후반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와 그의 제자들이 창건하거나 주석한 사찰의 권역에서 동일한 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림계’라 이름했다.

II.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금동아미타불좌상:

‘둘이 아닌 華藏과 極樂’

2구의 금동불좌상은 석굴암 조각과 함께 통일기 신라 불교조각의 기념비적 명작이지만, 관련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도 1,2). 기록이 없으니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 지금 자리한 전각이 원래 봉안장소인지, 그리고 2구의 불상은 왜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는지, 처음부터 ‘똑같은 모습, 다른 수인’의 상을 의도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중요한 불상인 만큼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가져왔고, 위 궁금증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⁴



도1.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높이 177cm, 국보 제26호, 불국사 비로전 (© 문화재청, 『한국의 국보, 회화·조각』, 2008, p.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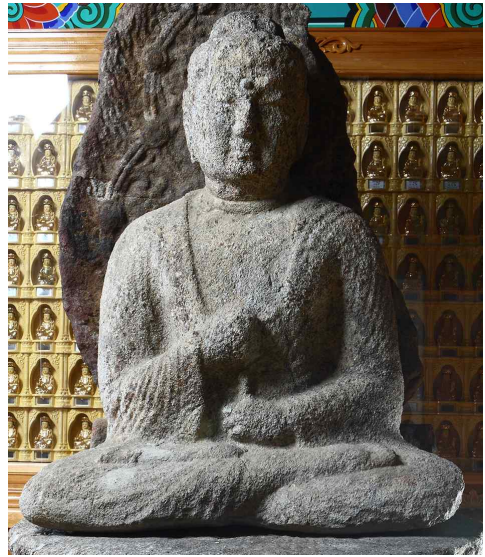
도2.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좌상, 높이 166cm, 국보 제27호, 불국사 극락전 (© 『한국의 국보, 회화·조각』, p. 27).

⁴ 두 불상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정작 단독 연구 성과는 몇 편 되지 않는다. 최근 연구는 정진영의 성과인데(「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금동아미타불좌상의 조성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298 (한국미술사학회, 2018), pp. 5-30), 두 상의 다양한 의문점에 대해 소상히 밝혀두었다. 이밖에도 금동비로자나불좌상 만을 다룬 최강국,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pp. 1-93과 문명대, 「불국사 금동여래좌상2구와 그 조상찬문의 연구」, 『미술자료』 19 (국립중앙박물관, 1976), pp. 1-16이 있다.

우선 언제 조성했는지의 문제만 두고도 크게 8세기 후반과 9세기 후반으로 엇갈린다.⁵ 무려 100년의 차이가 난다. 우선 8세기 후반이라고 본 견해는 불국사 중창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불상을 완성했을 것이라고 본 것인데, 766년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좌상이나 석굴암 본존 불상과는 서로 양식이 달라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도 3). 또 이 시기는 창건과 다름없는 중창불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김대성(700?-774)의 사망으로 동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2구의 대형 불상을, 그것도 금동불을 조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9세기 무렵에 제작한 것으로 보는 연구자가 보다 많다.⁶ 우선 양식으로 봐도 석굴암 본존 불상에 비해 긴 허리길이는 이 금동불을 8세기 후반 작품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두 상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 형식의 가사를 걸쳤으며,

당당한 어깨, 다소 긴 상체가 특징이다. 얼굴 모습은 9세기 무렵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백률사금동불입상과 많이 닮았다. 특히 상당히 높고 뾰족한 코, 도톰하게 솟은 인중, 산모양의 윗입술, 입술 아래 턱 중앙의 세로 파임선, 턱 아래 가로세김선, 삼도에 이르



도3.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상 높이 108cm, 보물 제1021호, 경남 산청군 내원사 (© 오세윤).

⁵ 8세기 후반은 강우방, 「한국 비로자나불상의 성립과 전개」, 『미술자료』 44 (국립중앙박물관, 1989), p. 55 (『원용과 조화』 (열화당, 1990), p.469); 배재호, 「아미타불상과 신앙」, 『신라사대계』 19 (경상북도, 2016), p. 85,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은 이숙희, 『비로자나불, 깨달음의 빛 -비로자나불 下』 (영축산 법성사, 2017), p. 30. 8세기 말은 朴亨國, 『ヴァイロ-チャナ佛の圖像學的研究』 (京都:法藏館, 2001), p. 220. 이 외에도 8세기 중엽으로 본 연구 성과는 진흥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1976), pp. 251-252; 곽동석, 『금동불』 (예경, 2000), pp. 190-193이 있다.

⁶ 9세기 가운데서도 9세기 전반은 강희정, 「9세기 비로자나불 조성의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1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3), pp. 139-173. 9세기 중-후반은 정진영, 앞의 논문, pp. 8-13; 임영애, 「통일기 신라 불국사의 불교조각」(『불국사』, 불국사성보박물관 개관도록, 2018), pp. 254-255, 9세기 후-말인 870-880년대는 최성은, 「나말려초 아미타불상의 도상적 고찰」, 『강좌미술사』 26 (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p. 225; 김리나·이숙희, 「통일신라시대 지권인 비로나자불상 연구의 쟁점과 과제」, 『미술사논단』 7 (한국미술연구소, 1998), p. 231의 글이 있다. 같은 9세기라도 9세기 말엽(875-900)에 제작했다고 본 연구는 문명대 교수이다(문명대, 앞의 논문, pp. 1-16). 이 글에 대해 최영성, 「崔致遠讚「佛國寺毘盧蔗那文殊普賢像讚」·「佛國寺阿彌陀佛像讚」과 불국사 금동비로자나여래좌상·금동아미타여래좌상의 관계 재론-문명대 교수의 所論에 대한 반론-」, 『한국철학논집』 20 (한국철학사연구회, 2007), pp. 221-241의 반론이 있다.



도4.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얼굴(왼쪽)과 백률사 금동불입상 얼굴(오른쪽)
 (© 『한국의 국보, 회화·조각』, pp.309, 323을 필자 편집).

기까지 매우 유사하다(도 4).

9세기일 가능성이 크다면, 2 세기의 언제쯤인지 역시 금금중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자에 따라 9세기 가운데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필자는 백률사 금동불입상과 양식이 유사한 점, 9세기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9세기 가운데서도 9세기 중-후반 무렵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79세기 전반이라는 시기는 잘 알려진 것처럼 원성왕계 후손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던 60여년의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있던 때이다. 또 이 무렵 ‘수놓은 비단을 불교 행사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의 사용을 금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⁷ 아무리 불국사라고 해도 이 정도 규모의 금동불은 사찰 재정만으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며, 왕실의 전폭적 지원이 있지 않고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불국사는 창건부터 지속적으로 왕실의 지원을 받았다. ‘금동비로자나·아미타불좌상’보다 늦은 시기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왕비 김씨가 돌아가신 아버지, 형을 위해 불국사에 稻穀 3천 톨을 아우를 위해 1천 톨, 모두 4천 톨,

7 임영애,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조명」 『미술사학연구』 278 (한국미술사학회, 2013, pp. 21-22)에서는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금동불을 조성할 사회적, 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진영의 의견이 보다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여(정진영, 앞의 논문, pp. 8-13), 9세기 중-후반으로 정정했다(임영애, 앞의 논문 (2018), pp. 254-255).

8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10 哀莊王 7年(806)의 佛事 규제 교서 참조.

즉 지금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쌀 4500가마니를 보시했다.⁹ 불국사가 9세기 말 왕실의 비호를 받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이다.

앞서 1580년 불국사를 방문했던 이덕홍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신라왕은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백성의 힘을 다 끌어다 썼으니 애석한 일이다”라고.¹⁰ 조선의 유학자이니 이처럼 ‘쓸모없고 허무한 일’이라고 말했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신라왕’이다. 이 말은 통일기 신라 불국사에 아낌없는 왕실의 재정 지원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이 두 상은 금동불이만큼 사실 고가의 동, 주석 등을 구하기 위한 재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왕실의 허락 등이 다 갖추어진 상태여야 가능하다.¹¹ 그리고 보면 불국사 금동불은 왕실의 지원이 가능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잘 알려진 것처럼 9세기 전반 혼란기를 지나 경문왕(재위 861-875)이 집권하면서 통일기 신라 불교미술은 다시 한번 꽃 피우며 경덕왕 이후 제 2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¹² 이를 고려하여 불국사의 두 금동불이 왕실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시기, 즉 제 48대 경문왕(재위 861-875)에 제작했을 것이라고 본 의견이 더 타당하다.¹³ 咸通(860-874)의 연호를 지닌 많은 수의 통일기 신라의 불교미술품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¹⁴

두 금동불좌상은 손모양도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비로자나불상의 지권인’과 ‘아미타불상의 설법인’은 오른손을 위로 한다. 그런데 이 두 금동불상은 2구 모두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했다. 손 위치가 바뀌었다(도 5). 조선시대 삼존상의 경우 좌우 대칭을 위해 좌협시상의 왼손을 위로 한 예가 있지만, 통일기 신라시기에는 드문 예이다.¹⁵ 두 상이 ‘불국사의 금동불’이기 때문에 단순 착오이거나 수인의 의미를 잘 알지

9 곡식 1점이 15말이니, 1천점은 1500말에 해당한다. 지금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12만kg에 해당하며, 쌀 1500가마니이다. 崔致遠, 「王妃金氏奉爲先考及亡兄追福施穀願文」, 「王妃金氏爲亡弟追福施穀願文」, 「마침내 죽은 아우를 위하여 (불국사 광학장에서) 명복을 빌고稻穀 1천 곶을 경건히 시사하옵니다. (중략) 경건하게 원하옵건대, 죽은 아우가 塵世의 속박을 훌훌 털어 華嚴海會로써 超克하게 하옵소서’. (최영성 역주, 『최치원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99), pp. 234-245).

10 李德弘, 앞의 책, p. 212.

11 858년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명문에 ‘大中12年(858) 戊寅 7월 17일에 武州 長沙 副官 김수종이 불상을 만들 것은 왕에게 간청했는데, 情王(이 후 헌안왕 재위 875-886)이 8월 22일 만들도록 허락했다’는 내용 참조.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박성연,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4), pp. 1-97이 좋은 참고가 된다.

12 임영애, 위의 논문 (2013), pp. 7-8.

13 정진영, 앞의 논문, pp. 17-18.

14 경문왕대에는 함통6년(865)명 쇄복(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을 비롯해 많은 불교미술품을 제작했는데, 이 시기의 비로자나불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임영애, 앞의 논문 (2013), pp. 5-30.



도5.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의 좌권인 (© 임영애).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로자나불상의 왼손이 위로 올라간 손 모양을 학계에서는 ‘좌권인’이라 부르는데, 이를 두고 밀교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직 학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¹⁶ 다만 불국사 금동불의 경우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의 ‘좌권인’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2구의 수인이 왜 함께 좌우가 바뀌었는지를 두고 보다 고민해야 하며, 비로자나불의 좌권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미타불도 함께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 대부분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똑같은 모습에 수인만 서로 다른’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을 왜 함께 만들었을까? 이를 두고 義湘(625-702)의 스승인 중국의 智儼(602-668)이 668년에 제자들에게 ‘잠시 미타정토에 갔다가 蓮華藏世界에 노닐 것이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 또한 이 뜻을 같이 하라’는 임종계를 남긴 것을 고려하여 ‘의상 미타신앙’과 관련지어 보기도 한다.¹⁷ 하지만 지엄은 진정 『華嚴經』의 주인공으로 비로자나

불을 간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관에 이르러 화엄종의 주불로 비로자나불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본 의견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¹⁸ 이와 관련하여 정작 의상은 부석사에 단독 아미타상만을 모셨기 때문에 불국사의 ‘비로자나·아미타 조합’의 이유를 ‘의상 미타신앙’만을 고려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견해가 있다.¹⁹ 이 보다는 799년 신라 유학승 梵修(?-?, 활동시기 8-9세기)가 들여온 『40華嚴經』과 『華嚴經疏』(787년경 澄觀 738-839 완성)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²⁰ 실제로 『40화엄

¹⁵ 통일기 신라 비로자나불상 가운데 좌권인은 흥천 물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광주 중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월지 출토 금동비로자나불입상 등을 비롯해 10여점이 알려져 있다. 9세기 좌권인 비로자나불상 목록은 정진영, 앞의 논문, p. 12의 표2에서 잘 제시하고 있다.

¹⁶ 예컨대 (좌권인)은 왼쪽에 ‘惠名’, 즉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있어, 왼손을 위로 올렸을 것으로 본 견해는 (배진달, 『연화장세계의 도상학』 (일지사, 2009), pp. 131-135).

¹⁷ 배진달, 위의 책, pp. 131-143.

¹⁸ 최원식, 「신라 하대의 해인사와 화엄종」, 『한국사연구』 49 (한국사연구회, 1985), p. 21.

¹⁹ 정진영, 앞의 논문, pp. 18-23.

²⁰ ‘그 후에 승려 梵修가 멀리 당나라에 가서 새로 번역한 『後分華嚴經』, 『觀師義疏』를 구해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니, 이때는 貞元 己卯(799)이었다’. T49n2039.1009a08 『三國遺事』 4 義解 勝詮觸髓. 『後分華嚴經』는 『40華嚴經』을, 『觀師義疏』는 『華嚴經疏』를 일컫는다.



도6. 비로사 비로자나·아미타불상, 비로자나 114cm, 아미타 118cm, 보물 제996호, 경북 영주시 비로사 (© 오세운).

경』이나 『화엄경소』의 유입으로 신라의 화엄은 9세기 무렵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 두 책에서는 비로자나불이 주인공이지만, 미타신앙을 적극적으로 강조한다. 특히 정관의 『화엄경소』에서는 비로자나와 아미타, 그리고 연화장세계와 극락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힘주어 말한다.²¹ 불국사의 이 두 금동불이 바로 아미타를 강조하는 9세기 화엄의 실천적 측면을 구체화한 예일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²² 이와 관련하여 최치원(857-?)이 「大華嚴宗佛國寺阿彌陀佛像讚 并序」에서 노래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화엄에 눈을 대고 연화장세계를 바라보며, 불국에 마음을 돌리니 아미타정토가 연결되었네.’²³ 비록 893년 이후의 글이기는 하지만 최치원의 위문장은 9세기에 왜 ‘비로자나·아미타’를 나란히 조성했는지 그 이유를 한층 분명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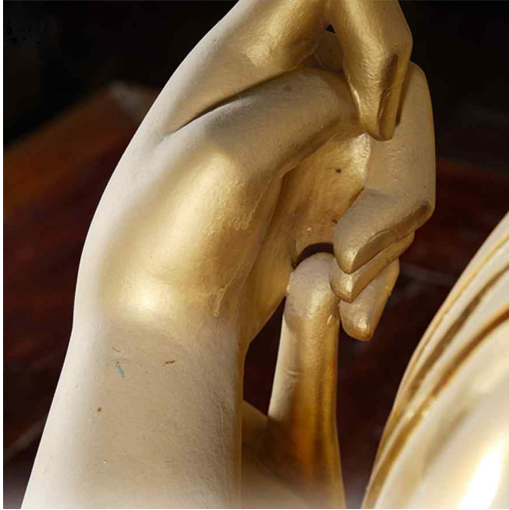
동일한 ‘비로자나·아미타’ 조합은 불국사 외에 딱 한 곳에서 더 발견된다. 바로 풍기 비로사이다(도 6).²⁴ 흥미롭게도 비로사는 부석사와 인접해 있다. 부석사는 신라 화

²¹ T35n1735.0955b23 『大方廣佛華嚴經疏』 60.

²² 정진영, 앞의 논문, pp. 18-23; ‘비로자나·아미타’의 조합을 9세기 화엄종의 실천적 성격을 형상으로 구체화시켰다고 본 견해는 충분히 설득력있다.

²³ 崔致遠, 「大華嚴宗佛國寺阿彌陀佛像讚 并序」, 최영성 역주, 앞의 책, pp. 206, 209.

²⁴ 비로사의 아미타, 비로자나불상에 대해서는 문명대, 「비로사 석조비로·아미타二佛像의 고찰」,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136·137, (한국미술사학회, 1978), pp. 126-133;



도7.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의 지권인
 (© 『한국의 국보, 회화·조각』, p. 312).

엄중 중심지로 의상과 신림이 활동했던 곳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의상의 손제자인 신림은 불국사가 완성되고 제일 먼저 주석했으며, 불국사 법회를 주관했다.²⁵ 그는 불국사뿐만 아니라 부석사에서도 활동하며, 부석적손으로서 8세기 불교계에 큰 역할을 했다.²⁶ 신림의 부석법회에는 1000여명의 대중이 모일 만큼 성황을 이뤘다고 전하기도 한다.²⁷ 의상의 제자인 신림을 불국사에 주석하게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부석사와 불국사가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부석사와 직선거리로 불과 10여 km 떨어진 지점의 비로사에 불국사와 같은 ‘비로자나·아미타’ 조합의상이 봉안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²⁸ 비로사 역시 왕실과 관련있는 사찰이다. 남아있는 기록이 영성하지만, 이곳에 929년 신라 귀족 眞空(855-937)이 파견되었고, 경순왕(재위 927-935)의 사

적비가 있었던 것을 보면 비로사 역시 신라 왕경귀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비로사 비로자나불좌상의 철사자 중대가 불국사 비로자나삼존상의 철사자 중대와 매우 닮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또 비로자나불이 지권인을 맺을 때 검지의 끝만 잡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도7). 통상 검지의 두 마디 이상을 거머쥔다. 불국사 지권인처럼 검지의 끝만 살짝 쥐고 있는 손 모양은 766년 산청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비로자나불좌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불국사의 비로자나불상을 8세기 후반으로 보려는 연구자도 있다. 하지

이숙희, 「비로사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에 관한 연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정재 김리나 교수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2007), pp. 157-174.

²⁵ 잘 알려진 것처럼 불국사에는 신림이, 석불사에는 표훈이 처음으로 각각 주석했다. ‘乃為現生二親創佛國寺 為前世爺孃創石佛寺 請神琳表訓二聖師各住焉’ T49n2039.1018a04 『三國遺事』 5 大城孝二世父母; 均如, 『釋華嚴教分記圓通鈔』 10 (『韓國佛教全書』 4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pp. 125c, 506a). 관련 연구는 김지건, 「신라 화엄학의 계보와 사상」,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2 (대한민국학술원, 1973), pp. 31-65.

²⁶ 均如, 『十句章圓通記』 後誌 (『韓國佛教全書』 4, p. 81a).

²⁷ 均如, 『釋華嚴教分記圓通鈔』 10 (『韓國佛教全書』 4, p. 506a).

²⁸ 다만 불국사와 비로사 아미타불상의 수인이 왜 서로 다른지, 비로사 대적광전의 비로자나·아미타불상은 처음부터 함께 봉안했는지, 각각 다른 불전에 봉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도8. 지권인 (왼쪽부터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임영애).

만, 이를 8세기 후반 지권인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9세기 후반 해인사 법보전의 비로자나불좌상도, 앞서 언급한 비로사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역시 ‘검지 끝을 권 지권인’을 취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석남암사는 해인사와 40여 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비로사는 부석사와 같은 권역이다.

석남암사, 불국사, 비로사, 해인사의 비로자나불상은 모두 재료가 서로 다르고, 제작 시기도 다르지만, ‘검지 끝을 권 지권인’의 모습은 같다(도 8). 해인사는 ‘신림의 직제자’인 順應(766년 입당)이 802년 창건했으며, 창건과 발전 과정에서 신라 왕실의 대대적 지원을 받았던 왕실사찰이다.²⁹ 이런 점에서 ‘검지 끝을 권 지권인’은 어쩌면 제작 시기에 따른 특징이 아니라, 신림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상의 특징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799년 정관의 『화엄경소』가 신라에 전해지고 얼마 안 있어 802년 해인사가 창건됐다.³⁰ 앞서 ‘비로자나·아미타’ 조합이 형성되는데 기여했을 것이라

²⁹ “조사인 순웅대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받아 대성하는 것을 신림 碩德에게서 엿보았으며...” 崔致遠, 『新羅伽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900년 집필 (최영성 역주, 앞의 책, pp. 284-285, 293-294); 김상현, 「9세기 후반의 해인사와 신라 왕실의 후원」, 『신라문화』 2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2006), pp. 235-264 ; 최원식, 앞의 논문, pp. 1-25; 해인사의 창건을 새로 등장한 하대 방계 김씨 왕실이 자신의 종교적 배경으로 삼으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파악한 견해는 고익진, 「신라 하대의 禪 전래」, 『한국선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pp. 19-20.

³⁰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10 哀莊王 3年 8月 “創加耶山海印寺”

고 본 『40화엄경』을 역시 이곳 해인사에서 베껴 쓰고, 1년에 두 차례 함께 모여 읽었던 점도 ‘부석사, 불국사, 해인사’간의 긴밀도를 분명히 알려준다.³¹

한편, 처음부터 지금처럼 ‘비로전’과 ‘극락전’에 각각 봉안되어 있었나하는 점도 궁금증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1688년 5월, 불국사를 방문한 정시한(1625-1707)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빈 전각이 여러 곳인데, 안에 금동불이 있는 곳이 두 곳이다. 모두 높이가 한 장이 넘고 매우 기이한 것이 하늘이 빛은 것 같다”.³² 그가 말한 ‘금동불 두 분’이 바로 비로자나·아미타불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다만 ‘높이가 한 장’, 즉 지금의 도량형으로 3미터 가량이라 했지만, 이는 그가 크게 느낀 탓일 수 있다. 위 내용은 적어도 17세기 후반, 두 금동불이 각각 봉안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³³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불국사가람배치는 계속 변했다. 크게는 임진왜란이 있었고,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이 두 금동불이 원래 봉안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의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연구자에 따라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은 대웅전이 있던 곳의 주존이었으며, 금동아미타불좌상은 극락전이 있던 전각의 주존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³⁴ 하지만,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이 ‘지금의 대웅전’의 주존이었다고 보기에는 상에 비해 전각의 규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두 금동불은 처음부터 특별한 의도로 함께 조성한 만큼 비로사의 예처럼 같은 공간에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III. 騎獅文殊, 騎象普賢의 석조비로자나삼존상

불국사에는 2구의 국보 금동불 말고도 흥미로운 상이 더 있다. 바로 1971년 6월 불국사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석조비로자나삼존불이다(도 9).³⁵ 지금은 그 위에 앉았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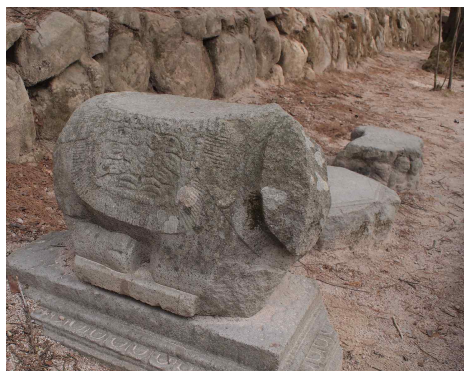
³¹ 「上宰國威大臣等奉爲獻康大王結華嚴經社願文」, 『圓宗文類』 卷二十二 (『韓國佛教全書』 4, p. 646).

³² 『山中日記』 “周觀空殿數處則有鑄銅佛二所皆丈餘奇惟天成”

³³ 임영애, 위의 논문 (2018), p. 257에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각 몇 곳을 보니 안에 금동불 두 분이 있는데 모두 높이가 한 장이 넘고 매우 기이한 것이 하늘이 빛은 것 같다”(정시한 저, 신대현 역, 『산중일기』 (혜안, 2005), p. 420)는 번역문을 참고하여 두 금동불이 하나의 전각 안에 함께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서술했지만, 이 글에서는 바로 잡는다.

³⁴ 배재호, 앞의 논문 (2016), p. 86. 현재 불국사 대웅전 건물은 5×5칸 건물이며, 조선 후기의 건물이지만, 적어도 기초는 창건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자나불좌상, 그리고 문수, 보현보살은 사라지고 대좌만 덩그러니 남았지만, 통일기 신라 불교 조각의 소중한 예이다. 특별히 귀중한 이유는 바로 특이한 대좌 때문이다. ‘문수보살이 탔을 사자 대좌’와 ‘보현보살이 탔을 코끼리 대좌’가 그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례가 매우 드물다.³⁶ 통일기 신라시기 비로자나불상은 불상만 단독으로 봉안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문수·보현을 좌우 협시로 하는 비로자나삼존불상은 거의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騎獅文殊·騎象普賢 보살을 좌우 협시로 하는 비로자나삼존상’은 단 세 곳에 불과하다. 통일기 신라 하대의 불국사, 비로사, 그리고 고려 초기의 한송사이다. 반면 중국은 문수와 보현보살을 좌우협시로 하는 비로자나삼존불 형식은 당대 후기에 꽤 유행했다. 이들 ‘기사문수·기상보현의 비로자나삼존상’의 보다 면밀한 논의는 별도의 논고를 마련하려 한다.³⁷



도9. 불국사 석조비로자나삼존상 대좌, 2016년 촬영 (© 임영애).

아쉽게도 이 비로자나삼존불좌상에 대한 문헌 기록은 매우 영성하다. 1740년에 편집된 『불국사고금창기』에 “문수전에 안치한 비로석상과 좌우의 문수 보현좌대인 코끼리, 사자 2구는 화재로 인해 손상되었다.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쓰인 기록이 유일하다.³⁸ 내용으로 보아 이 석조비로자나삼존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발견된 장소는 무설전 동북 방향 석축 아래인데 발견 당시 네 모서리에 초석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 이 자리가 문수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³⁹ 짐작컨대 9세기 중엽 무렵 조성된 비로자나삼존상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실된 후 매납되었고, 이

35 불국사 대좌에 대한 가장 이른 연구 성과는 문명대, 「불국사 석조비로자나삼존상 대좌」, 『한국의 불상조각』 2 (도서출판 예경, 2003), pp. 291-298이 있다.

36 보통 문수와 보현이 사자와 코끼리를 탄다는 문헌적 근거는 『佛說陀羅尼集經』(T18n901,0790a23)에서 찾는다. 사자와 코끼리를 탄 문수, 보현보살상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고지마 아야[小島 彩], 「騎象普賢と騎獅文殊の圖像-中國における成立過程」, 『美術史』 137 (美術史學會, 1995), pp. 43-59; 朴亨國, 「中國における騎獅文殊と騎象普賢の成立と一対化過程に関する一試論」, 『密教圖像』 23 (密教圖像學會, 2004), pp. 1-25.

37 불국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석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의 7사자 대좌, 그리고 사자와 코끼리 대좌, 그리고 왜 신림과 관련된 권역을 중심으로 이들 삼존상을 조성했는지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고는 별도로 작성 중이며(임영애, 「불국사의 騎獅文殊, 騎象普賢 비로자나삼존상」(가제), 출간예정), 이 글에서는 ‘신림계’라는 관점에서만 살폈다.

38 『佛國寺古今創記』(韓國學文獻研究所 편, 『佛國寺誌 外』, 韓國寺志叢書 11 (아세아문화사, 1983), p. 48).

39 문화재관리국,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76), p. 232.



도10.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불국사성보박물관
(© 임영애).

후 1971년 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⁴⁰

불국사 비로자나삼존상의 대좌는 비록 상태는 나쁘지만 중앙의 비로자나불좌상은 칠사자 대좌를, 좌협시 문수보살은 사자 대좌를, 우협시 보현보살은 코끼리 대좌를 갖추었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아쉽게도 그 위에 앉았을 비로자나불좌상과 문수·보현보살상은 파편으로조차 남아있지 않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와 보현보살상이 배치되는 삼존의 조합은 징관이 저술한 『三聖圓融觀門』에 근거를 두었을 것이라고 본다.⁴¹ ‘비로자나, 문수, 보현’이 ‘三聖의 원융’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관은 앞서 ‘비로자나·아미타’가 한 세트를 이룬 것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華嚴經疏』를 787년 무렵 완성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비로자나불상이 앉았던 대좌

는 7사자 중대인데(도 10), 일곱 마리 사자가 구름 사이로 머리를 내민 모습을 조각했다. 지금은 마멸이 심해 한 두예를 제외하고는 사자 얼굴이 뚜렷하지 않다(도 11의 왼쪽). 7사자 대좌는 863년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비



도11. 도10의 중대 사자상(왼쪽)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중대(오른쪽) (© 임영애).

⁴⁰ 『佛國寺古今創記』의 기록과 달리 현재 불국사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비로자나삼존상의 대좌에서 화재로 인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비로자나, 문수, 보현보살 등 像이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고 대좌 역시 상태가 매우 나빠 18세기 당시 기록자가 화재로 인한 손상이었다고 짐작했을 수 있다고 본다.

⁴¹ T35n1733.001 法藏, 『華嚴經探玄記』; T45n1882.0671a10 澄觀, 『三聖圓融觀門』 ‘三聖者本師毘盧遮那如來 普賢 文殊二大菩薩是也’.



도12. 사자 대좌, 석조비로자나삼존상 좌협시 문수보살의 대좌, 불국사성보박물관 (© 임영애).



도13. 코끼리 대좌, 석조비로자나삼존상 우협시 보현보살의 대좌, 불국사성보박물관 (© 임영애).

로사 비로자나불좌상 등 몇 예가 남아있다.⁴²

더욱 귀한 예는 좌우의 사자 대좌와 코끼리 대좌이다(도 12,13). 현재 사자만 머리가 겨우 남아있어 확인이 가능한데, 머리 방향은 불상 방향이 아니라 바깥쪽을 바라본다. 코끼리는 머리가 사라지고 없지만, 역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바깥쪽을 바라보도록 하여 좌우 대칭이 되게 했을 것이다. 사자와 코끼리 모두 다리를 접어 웅크리고 앉았는데, 등에는 꽃무늬로 장식한 안장이 덮여있으며, 안장의 가장자리는 연주문과 짧은 술로 장식했다. 웅크린 사자의 발은 발가락이 가늘고 길며, 코끼리 발은 뭉뚱하게 표현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파손이 심하여 세밀한 파악이 어렵다.

불국사 석조비로자나삼존상과 같은 형식을 지닌 통일기 신라의 예는 딱 1점이 더 있다. 바로 1965년 법수사지에서 경북대 박물관으로 옮겨진 석조비로자나삼존상이다(도 14).⁴³ 불국사의 삼존상과 같은 형식이며, 크기도 비슷하다. 우선 비로자나불상의 대좌 가운데 중대는 마멸



도14. 법수사지 석조비로자나삼존불, 경북대학교 박물관 야외전시장 (© 강삼혜).

⁴² 이 7사자가 표현된 연화 대좌를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중엽-10세기 초에 걸쳐서 경상도 낙동강 유역비로자나불상의 대좌에만 나타나는 시대적 지역적 특징으로 보기도 한다. 朴亨國, 「七獅子蓮華座의 圖像について」, 『密教圖像』 14 (密教圖像學會, 1995), pp. 34-60; 朴亨國, 앞의 책, pp. 348-363.

⁴³ 윤용진, 「법수사지와 유물」, 『고문화』 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62), p. 40; 문명대, 「법수사의 마하비로자나 삼존불」, 『고문화』 5·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69), pp. 40-44.



도15. 도14의 좌협시 문수보살의 사자 대좌
(© 강삼혜).



도16. 도14의 우협시 보현보살의 코끼리 대좌
(© 강삼혜)

이 심하지만, 돌출된 사자 머리를 확인할 수 있어 불국사의 예와 마찬가지로 역시 7사자 대좌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비로사의 비로자나불좌상 역시 7사자 대좌 위에 앉았는데 불국사 7사자 대좌와 동일한 양식과 형식으로 사자가 배치되어 있어 이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신림계 권역의 불교조각’과 잘 부합한다(도 11).⁴⁴ 동화사상은 8각의 면마다 7마리 사자를 새기고, 나머지 1면에는 구름 가운데 연꽃을 새겨 넣었지만, 비로사 중대는 7마리 사자를 새기고 남은 1면에 구름만 새겨 넣어 단순화했다. 불국사 중대는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유사했을 것이라 판단한다. 다만 범수사지의 좌우 사자, 코끼리 대좌의 머리 방향은 불국사와 달리 모두 비로자나불을 향하고 있다(도 15,16).

범수사 역시 ‘신림과 관련된 해인사’와 함께 통일신라 하대 가야산 권역의 대표적 화엄종 사찰이지만, 물리적으로도 아주 가깝다. 직선거리로 4km, 돌아가도 13km 이다(도 17). 범수사와 해인사의 친밀도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입증된다. ‘경순왕(재위 927-935)이 고려 태조에 항복하자 그의 막내아들이 머리를 깎고 화엄종에 귀의하여 梵空이라고 하더니, 이 후 범수사와 해인사에 머물렀다’라든지,⁴⁵ 또 임진왜란으로 범수사가 폐사되자 이곳의 비로자나불상과 보살상을 1897년 해인사로 옮겼다는 기록도

⁴⁴ 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가운데 하대석만 불상 밑에 놓여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찰 경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상대석과 광배편은 진공대사 보법탑비 옆에, 중대석과 지대석은 적광전 앞 석탑의 부재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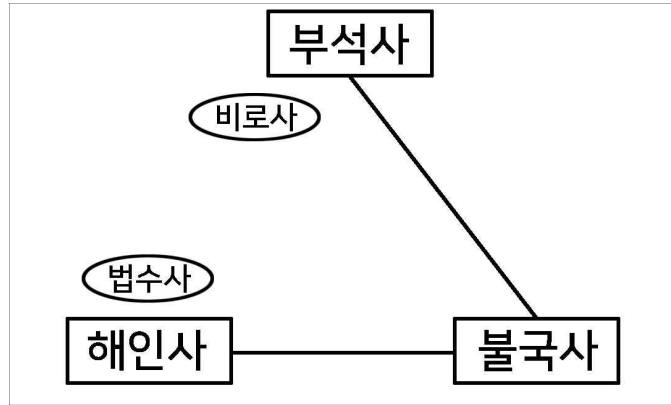
⁴⁵ T49n2039.0977b29 『三國遺事』 2 金傳大王: 이 밖에도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복장 유물 가운데 1156년 범수사에서 간행한 『梵字大藏』이 포함되어 있어(해인사·문화재청 편, 『海印寺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해인사·문화재청, 2008), pp. 41-42.

마찬가지이다.⁴⁶

흥미롭게도 9세기 불국사에는 비로자나불상만 적어도 3점 이상 있었다. 앞서 국보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이 있고, 대좌만 남아있는 석조비로자나삼존상, 그리고 9세기 말 불국사 광학장 벽에 그려진 비로자나삼존불화가 있다. 광학장 벽화는 남아있지 않지만, 제 49대 헌강왕(재위 875-886)의妃였던 權氏, 즉 秀圓비구니가 발원하여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⁴⁷ 기록의 비로자나문수보현상이 대좌만 남아있는 비로자나삼존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⁴⁸ 최치원의 글은 분명히 조각이 아닌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광학장 벽면에 그린 비로자나삼존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지만, 이 시기 비로자나삼존상인 경우 문수와 보현을 좌우 협시보살로 두었으며, 문수와 보현은 사자와 코끼리 대좌였을 가능성이 높다. 9세기에만 비로자나불이 3점이나 불국사에 봉안된 것은 당시 불국사가 경문왕 및 그 직계 자녀를 포함한 신라왕실과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⁴⁹

한편 대웅전에 보관되어 있던 광배는 1938년까지는 대웅전 동북 모서리 우물 위에 있었다.⁵⁰ 광배의 크기는 대략 높이 98.5, 너비 114.0cm이며, 밑변의 너비는 78cm 가량 된다(도 18). 앞서 비로자나불좌상 대좌 윗변의 너비가 80cm 가 넘으니, 크기로 비로자나불상의 광배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지만, 제 짝이 아니다. 대좌 윗면에 광배와 결합시키기 위한 길이 40cm 가량의 타원형 홈이 파여 있기 때문이다(도 19). 반면 광배의 밑면은 따로 축을 두지 않아 편편하다. 광배 윗부분이 손상되었지만, 원래 삼존화불이



도17. 불국사, 부석사, 해인사 배치도 (© 임영애).

46 이지관 편저, 『伽倻山海印寺誌』, 가산문고, 1992, pp. 562-563.

47 『佛國寺事蹟』(韓國學文獻研究所 편, 앞의 책, pp. 25-27); 임영애, 앞의 논문(2013), pp. 21-22; 崔致遠 識, 「大華嚴宗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像讚并序」 ‘불국사 光學藏의 講室 왼쪽 벽에 그린 불상(비로자나불)은 太傅에 추증된 헌강대왕의 脩媛權氏 법호 秀圓이 尊靈의 명복을 追奉하기 위해 모신 것이다. …媛妃는 … 이에 고개지와 같은 妙手를 불러 부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최영성, 앞의 논문(2007), p. 230 ; 이때 그림을 그렸다는 ‘妙手’는 『불국사고금창기』에 의하면 경문왕때 사람으로 그림을 잘 그렸던 원해 비구니라고 한다. 최영성, 앞의 논문(2007), p. 230의 각주12.

48 朴亨國, 앞의 책, p. 320의 각주 87.

49 임영애, 앞의 논문(2013), pp. 21-22.

50 朝鮮總督府 編, 『佛國寺と石窟庵』(京都: 文星堂, 1938), 圖19.



도18. 석조 광배, 불국사성보박물관 (© 임영애).



도19. 도10의 상대 윗면, 불국사성보박물관 (© 임영애).



도20. 도18 석조광배의 화불과 널굴무늬, 불국사성보박물관 (© 임영애).

있었을 것이다. 광배 좌우에는 두광과 신광 테두리 위에 좌우 각 3구씩, 모두 6구의 화불이 배치되어 있다. 화불의 손모양이 제각각이며, 그 주위로 굵은 선의 꽃무늬와 불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도 20). 안타깝게도 불상은 사라지고 광배만 남았지만, 광배의 너비가 넓고 꼭대기에 삼존화불, 두광 좌우로 각 1구, 신광 좌우로 각 2구의 화불이 배치되어 있는 점, 가장자리의 굵은 화염문은 불국사 광배와 같은 형식이다. 이처럼 가로 너비가 넓은 광배는 주로 9세기 불상에 많이 쓰였다.

IV. 맺음말: 神琳系 불교조각의 확산

현재 불국사에서는 742년 창건기의 불교조각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지만, 남아있는 2구의 국보 금동불입상은 당당한 신체와 비례, 뛰어난 조각 수법에서 그 어떤 조각보다 훌륭한 명작이다. 또 이 두 금동불이 ‘비로자나·아미타’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그 유례가 드문 특수한 예이다. 이 뿐만 아니다. 비록 파손되어 대좌만 남았지만, ‘사자·코끼리 대좌의 비로자나삼존상’ 역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한 통일기 신라 9세기 불상연구의 소중한 자료이다.

흥미롭게도 9세기 불국사 불교조각의 ‘비로자나·아미타’ 조합, ‘사자·코끼리 대

좌의 비로자나삼존'으로 압축되는 특징은 의상의 손제자인 '神琳'과 연관 있다. '신림 혹은 그의 제자'와 관련된 사찰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특이한 도상은 불국사를 제외하고는 현재 비로사와 법수사에서만 발견된다. 비로사에는 '비로자나불좌상과 아미타불좌상'이 한 세트로 마련되었고, 법수사에는 '코끼리, 사자 대좌의 비로자나삼존상'이 있었다. 그런데 비로사와 법수사는 신림계 승려의 주된 활동 거점인 부석사와 해인사 바로 옆에 각각 위치했다(도 17). 부석사와 비로사는 10여 km, 해인사와 법수사는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의 검지 끝을 잡는 독특한 지권인 수인 역시 해인사와 인접한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처음 나타나며, 이 역시 인근 해인사 법보전 상을 비롯해, 비로사 상에서도 보인다.

8세기 창건기에는 의상계 화엄학과 표훈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불국사에 남아있는 9세기 불교조각은 이처럼 의상의 적통을 이어받은 '신림'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신림은 불국사, 부석사에서 거주하며 활동했고, 그의 직제자 순웅은 해인사를 창건했다. 흥미롭게도 불국사의 9세기 불상의 이러한 특징은 '신림과 그의 제자'의 활동 범위인 부석사와 해인사 인근의 사찰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현재 부석사와 해인사에는 동일한 도상의 불상이 남아있지 않지만, 최치원이 해인사에 머물며 남긴 기록 가운데 '암굴에서 象王이 나와 뚜벅뚜벅 象王의 걸음을 내딛으며, 좌석에 獅子가 올라앉아 사자의 소리를 고향하니 하늘 입(天口)이 구름에 싸인 것 같고 바다 입술(海脣)에 물결이 고동치는 듯하였다.'는 기술은 비록 은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자·코끼리 대좌의 비로자나삼존상' 그림이 이 곳 해인사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⁵¹ 해당 기록은 최치원이 머물던 善安住院의 壁記인데, 선안주원이 『화엄경』의 善安住樓閣에서 유래한 것이고 보면, 앞서의 표현은 선안주원 벽면에 있던 비로자나삼존도를 두고 비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최치원은 이미 불국사의 「비로자나문수보현보살상찬」을 집필한 이후여서 壁記를 쓰면서 불국사 광학장 벽면의 비로자나삼존상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한편, 고려 초 강릉 문수사(현 한송사지)에도 비로자나삼존상을 봉안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 가운데 문수보살은 국립춘천박물관이, 보현보살은 강릉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한송사지 현장에는 이 두 보살상이 앉았던 사자와 코끼리 대좌가 남아있다.⁵² 문수사 비로자나삼존상 역시 불국사, 법수사와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은 사자 대좌 위에, 보현보살은 코끼리 대좌 위에 앉았다. 다만 대좌의 모양은 불국사나 법수사의 대좌처럼 한 변이 긴 직사각형이 아니라 장방형이며, 사자와 코끼리를 하대까지 모두

⁵¹ 崔致遠, 「新羅伽椰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최영성 역주, 앞의 책, pp. 283, 292.

⁵² 최근 국립춘천박물관은 현장에 남아있는 사자 대좌를 기초로 문수보살상의 사자 대좌를 복원해 전시하고 있다.

한 돌로 제작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물로 남아있는 것은 고려 초 문수사의 비로자나삼존상 한 예에 불과하지만, 같은 권역인 오대산 華藏寺에도 원각의 비로자나삼존불을 봉안했음이 기록으로 확인된다.⁵³ 비로자나삼존상이 고려초 이곳 강릉과 오대산 일대로 확산되어 조성된 이유는 또 무엇인가.

기본적으로는 오대산 문수신앙이 배경이 되었겠지만, 신림계와의 관련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802년 해인사를 창건한 신림의 직제자 순응의 이름은 강원도 양양 선림원 범종(804년)에 등장한다.⁵⁴ 양양 선림원에서 강릉 문수사까지는 직선거리로 30여 km 떨어진 멀지 않은 거리이다. 또 사굴산과 범일의 제자인 朗空대사 行寂(832-916) 역시 해인사에서 화엄을 배웠다.⁵⁵ 사자산문 징효대사 折中(826-900)도 15세인 840년에 부석사에서 출가했으며, 신라말 해인사에서 북악파를 대표하던 희랑이 사자산 흥녕사의 院主였음을 고려하면, 이곳 강릉, 영월, 오대산 일대가 부석사, 해인사와 긴밀한 관계였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현재 불국사에 남아있는 통일기 신라 불교조각은 한국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매우 특별한 작품이다. ‘비로자나·아미타’ 조합의 불상, 그리고 ‘사자 대좌, 코끼리 대좌의 비로자나삼존’은 한국 불교조각사에서 그 유례가 매우 드문 예이기 때문이다. 지금 남아있는 예만 이 정도인데, 창건시기의 불상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이다. 1767년 음력 11월 27일, 불국사를 찾은 영조대 실학과 학자 朴琮(1735-1793)은 이렇게 말한다. “石物과 누각, 불전 가운데 열이 없어지고 하나가 남아 있는 것도 오히려 이와 같이 기이하고 아름다우니, 신라가 처음 이 절을 창건한 당시의 유물이 찬연히 빛났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⁵⁶라고.

* 주제어(Key Words)

神琳系(disciples of Shinrim), 順應(Sun-eung), 佛國寺(Bulguksa temple), 浮石寺(Buseoksa temple), 海印寺(Haeinsa temple), 法水寺(Beopsusa temple), 毘盧寺(Viro temple), 毘盧蔗那·阿彌陀佛(Vairocana·Amitabha), 사자·코끼리 대좌(lion·elephant pedestal), 비로자나삼존불(Vairocana Triad)

⁵³ “오대산 화장사 705년 창건에 寶川庵을 고쳐 세워 華藏寺라 하고 圓像 毗盧遮那三尊과 大藏經을 모시라. (중략) 이 華藏寺를 五臺社의 本寺로 하여 굳게 지키도록 하라”. T49n2039.0998b20 『三國遺事』 3 臺山五萬真身.

⁵⁴ 최웅천, 「禪林院址 梵鐘의 복원과 의의」, 『강좌 미술사』 18 (한국미술사연구소, 2002), p. 60.

⁵⁵ 「奉化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1919, p. 182.

⁵⁶ 朴琮 『鑑洲集』 卷15 遊錄 東京遊錄.

참고문헌

- 『圓宗文類』卷二十二, 『韓國佛教全書』 4.
『佛國寺古今創記』
『佛國寺誌 外』,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韓國寺志叢書 11, 아세아문화사, 1983.
『伽倻山海印寺誌』 이지관 편저, 가산문고, 1992.
『三國史記』 卷10 哀莊王 3年 8月, 7年.
均如, 『釋華嚴教分記圓通鈔』 10, 『韓國佛教全書』 4,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均如, 『十句章圓通記』 後誌, 『韓國佛教全書』 4.
朴琮 『鎭洲集』 卷15 遊錄 東京遊錄.
李德弘, 『良齋集』 卷7, 民族文化推進黨 編輯, 『韓國文集叢刊』 51, 1990.
崔致遠, 「大華嚴宗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像讚并序」
崔致遠, 「新羅伽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崔致遠, 「王妃金氏奉爲先考及亡兄追福施穀願文」
崔致遠,, 「王妃金氏爲亡弟追福施穀願文」
- T18n901.0790a23 『佛說陀羅尼集經』
T35n1733.001 法藏, 『華嚴經探玄記』
T45n1882.0671a10 澄觀, 『三聖圓融觀門』
T49n2039.0977b29 『三國遺事』 2 金傳大王
T49n2039.0998b20 『三國遺事』 3 臺山五萬真身
T49n2039.1009a08 『三國遺事』 4 勝詮觸髓
T49n2039.1018a04 『三國遺事』 5 大城孝二世父母
- 강우방, 「한국 비로자나불상의 성립과 전개」, 『미술자료』 44, 국립중앙박물관, 1989.
강희정, 「9세기 비로자나불 조성의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1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3.
고익진, 「신라 하대의 禪 전래」, 『한국선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곽동석, 『금동불』, 예경, 2000.
김리나 · 이숙희, 「통일신라시대 지권인 비로자나불상 연구의 쟁점과 과제」, 『미술사논단』 7, 한국미술연구소, 1998.
김상현, 「9세기 후반의 해인사와 신라 왕실의 후원」, 『신라문화』 2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2006.
김지건, 「신라 화엄학의 계보와 사상」,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2, 대한민국 학술원, 1973.
문명대, 「법수사의 마하비로자나 삼존불」, 『고문화』 5·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69.
문명대, 「불국사 금동여래좌상2구와 그 조상찬문의 연구」, 『미술자료』 19, 국립중앙박물관, 1976.
문명대, 「불국사 석비로자나삼존상 대좌」, 『한국의 불상조각』 2, 도서출판 예경, 2003.
문명대, 「비로사 석조비로·아미타二佛像의 고찰」,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136·137, 한국미술사학회, 1978.

- 문화재관리국,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6.
- 박성연,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4.
- 배재호, 「아미타불상과 신앙」, 『신라사대계』 19, 경상북도, 2016.
- 배진달, 『연화장세계의 도상학』, 일지사, 2009.
- 윤용진, 「법수사지와 유물」, 『고문화』 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62.
- 이숙희, 「비로사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에 관한 연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정재 김리나 교수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2007.
- 이숙희, 『비로자나불, 깨달음의 빛 -비로자나불 下』, 영축산 법성사, 2017.
- 임영애,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조명」, 『미술사학연구』 278, 한국미술사학회, 2013.
- 임영애, 「통일기 신라 불국사의 불교조각」, 『불국사』, 불국사성보박물관 개관도록, 2018.
- 정시한 저, 신대현 역, 『산중일기』, 해안, 2005.
- 정진영,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금동아미타불좌상의 조성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298, 한국미술사학회, 2018.
- 진홍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1976.
- 최강국,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 최성은, 「나말러초 아미타불상의 도상적 고찰」, 『강좌미술사』 26, 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 최영성 역주, 『최치원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99.
- 최영성, 「崔致遠讚 「佛國寺毘盧蔗那文殊普賢像讚」 · 「佛國寺阿彌陀佛像讚」과 불국사 금동비로자나여래좌상 ·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의 관계 재론-문명대 교수의 所論에 대한 반론-」, 『한국철학논집』 20, 한국철학사연구회, 2007.
- 최원식, 「신라 하대의 해인사와 화엄종」, 『한국사연구』 49, 한국사연구회, 1985.
- 최응천, 「禪林院址 梵鐘의 복원과 의의」, 『강좌 미술사』 18, 한국미술사연구소, 2002.
- 해인사 · 문화재청 편, 『海印寺 대적광전 · 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해인사 · 문화재청, 2008.
- 小島 彩, 「騎象普賢と騎獅文殊の圖像-中國における成立過程」, 『美術史』 137, 美術史學會, 1995.
- 朴亨國, 「中國における騎獅文殊と騎象普賢の成立と一対化過程に関する一試論」, 『密教圖像』 23, 密教圖像學會, 2004.
- 朴亨國, 「七獅子蓮華座の圖像について」, 『密教圖像』 14, 密教圖像學會, 1995.
- 朴亨國, 『ヴァイロ-チャナ佛の圖像學的研究』, 京都:法藏館, 2001.
- 朝鮮總督府 編, 『佛國寺と石窟庵』, 京都: 文星堂, 1938, 圖19.

| 국문초록 |

현재 불국사에는 742년 창건 당시 불교조각은 없지만, 한국조각사에서 유례가 드문 두 종류의 조각이 남아있다. 하나는 ‘비로자나·아미타불상이 한 세트를 이룬 금동불상’이며, 다른 하나는 ‘사자·코끼리 대좌의 비로자나삼존상’이다. ‘비로자나·아미타 금동불상’은 당당한 신체와 비례, 뛰어난 조각 수법에서 그 어떤 조각보다 훌륭한 명작이다. 또 비록 파손되어 대좌만 남았지만, ‘사자·코끼리 대좌의 비로자나삼존상’ 역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한 통일리 신라 9세기 불상연구의 소중한 자료이다. 이 글은 한국 조각사에서 그 유례가 드문 이런 특별한 조합의 불상을 이곳 불국사에서 조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흥미롭게도 9세기에 제작한 이들 불국사 불교조각의 ‘비로자나·아미타’ 조합, ‘사자·코끼리 대좌의 비로자나삼존’으로 압축되는 특징은 의상의 손제자인 ‘神琳’과 연관있다. 그와 관련된 사찰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특이한 도상은 불국사를 제외하고는 현재 비로사와 법수사에서만 발견된다. 비로사에는 ‘비로자나와 아미타불상’이 한 세트로 마련되었고, 법수사에는 ‘코끼리, 사자 대좌의 비로자나삼존상’이 있었다. 그런데 비로사와 법수사는 신림계 승려의 주된 활동 거점인 부석사와 해인사 바로 옆에 각각 위치했다.

8세기 창건기에는 의상계 화엄학과 표훈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불국사에 남아있는 9세기 불교조각은 이처럼 의상의 적통을 이어받은 ‘신림’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신림은 불국사, 부석사에서 거주하며 활동했고, 그의 직제자 순웅은 해인사를 창건했다. 아쉽게도 현재 부석사와 해인사에는 동일한 도상의 불상이 남아있지 않지만, 최치원의 기록을 통해 보면 비로자나삼존상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불국사 9세기 불상의 이러한 특징이 ‘신림과 그의 제자’의 활동 범위인 부석사와 해인사 인근의 사찰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국사의 불교조각은 적어도 9세기까지는 이곳 불국사에 신림의 영향력이 지속되었음을 알려 준다.

The 9th Century Buddhist Sculptures of ‘Disciples of Shinrim (神琳系)’ in Bulguksa Temple

Lim, Young-ae *

At present Bulguksa temple does not have Buddhist sculptures that were at the time of its foundation in 742, but there are two kinds of sculptures that are rare in the Korean sculpture history. One is a bronze Buddha statue with a set of ‘Vairocana · Amitabha bronze Buddha statue’ and the other is the ‘Vairocana Triad of the lion/elephant pedestal’. ‘Vairocana · Amitabha bronze Buddha statue’ is a masterpiece that is better than any other pieces in its imposing body, proportion, and superior sculpture tactics. In addition, even though it was destroyed and only the pedestal was left, but the ‘Vairocana Triad of the lion/elephant pedestal’ is also a valuable resource for the Silla 9th century Buddha statues study, which has a very special significance.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uriosity of why these unique combinations of rare Korean sculptures were enshrined here in this Bulguksa temple.

Intriguingly, the features that are compressed in the 9th century Bulguksa temple Buddhist sculpture, a combination of ‘Vairocana-Amitabha’, and the Vairocana Triad of the lion/elephant pedestal are associated with Shinrim (神琳 ??, active 8-9c), a student of a student of Uisang (義湘). Because it seems common in the area of temples associated with it. These two unique iconographies are found only in Virosa temple (毘盧寺) and Beopsusa temple (法水寺) except for Bulguksa temple. Virosa temple has a set of ‘Vairocana · Amitabha Buddha statue’, and in the Beopsusa temple there was the Vairocana Triad of the elephant/lion pedestal. The Virosa temple and the Beopsusa temple were located next to the Buseoksa temple (浮石寺) and the Haeinsa temple (海印寺), which were the main points for lives of Shinrim lineage monks.

At the time of construction in the 8th century, the influence of Uisang lineage (義湘系) Hwaecom school, Pyohun (表訓) would play a great role, but the 9th century

* Professor, Gyeongju University

Buddhist sculptures remaining in the Bulguksa temple are linked to Shinrim, which succeeded to the reign of Uisang. Shinrim resided and lived in Bulguksa temple and Buseoksa temple, and his direct student, Sun-eung (順應) established the Haeinsa temple. Unfortunately, there are no statues of the same iconography in Buseok temple and Haeinsa temple, but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as even formed in the form of a picture.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this feature of the 9th century Bulguksa temple Buddha statues is found only in temples around Buseoksa temple and Haeinsa temple, which were in the residential domain of 'Shinrim and his disciples'. The Buddhist sculptures in Bulguksa temple reveal that the influence of Shinrim continued to the Bulguksa temple here at least until the 9th century.

논문투고일: 2019. 01. 04 / 논문심사완료일: 2019. 01. 18 / 게재확정일: 2019. 01. 18